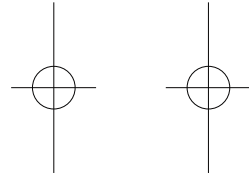


인류세의 농부와 두루미¹



2000년 11월 6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옛 노동당사 앞. 뼈대만 남은 노동당사 건물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던 초겨울의 날이었다. 철원 농민 200여 명은 막 집회를 마친 참이었다. “자, 출발합시다.” 들뜬 흥분과 소란, 긴장 속에서 첫 번째 트랙터가 시동을 걸었다. 트랙터는 노동당사 앞 검문소를 통과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부로 진입했다. 도로 양옆에는 추수를 끝낸 논이 펼쳐져 있었다. 트랙터는 논으로 들어가 빈들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논 위의 말라가던 벼짚과 이삭이 퍼 올린 흙과 섞여 한 덩어리가 됐다. 이어 두 번째 트랙터가 출발했다. 민통선을 넘어간 트랙터는 다른 논을 갈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묵묵히 잇달아 트랙터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동원된 트랙터는 80여 대. 철원에서 이렇게 많은 트랙터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²

그로부터 약 두 달 전 정부는 철원 민통선 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 245호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로 변경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철원 농민들은 바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잖아도 군사 보호구역이라고 갖은 제약을 받아 왔는데, 자연 보호구역까지 되면 어떤 규제가 더해질지 모를 일이었다. 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하니, 그렇다면 새를 못 오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논을 갈면 떨어져 있던 알곡이 흙에 섞여 두루미의 먹이가 없어진

최명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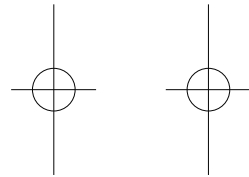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소센터에서 한국의 자연 보전을 연구해 왔다. 2023년 3월부터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서 다중적 인류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 추수가 끝난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은 먹을 것을 없애 두루미가 못 오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만큼 철원 농부들이 철새 보호 지역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냉전이 만든 뜻밖의 자연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당초 두루미가 철원에 온 데에는 농민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탓도 있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에서 여름을 나고 중국 남부, 한국,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다. 한반도 여러 지역에 두루미 월동 기록이 있지만, 두루미가 철원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부터였다.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두루미 100여 마리가 월동한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더니, 1985년께부터는 민통선 안의 논에서 수십 마리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두루미(*grus japonensis*)와 재두



루미(*grus vipio*)가 각각 이삼백 마리씩 철원에서 월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두루미는 정수리에 붉은 점이 있고, 목이 희고 꼬리 날개깃이 검은 새다. 재두루미는 눈 주변이 붉고, 몸 전체가 회색빛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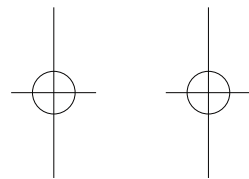
두루미는 왜 철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을까. 식민지 개척과 전쟁, 냉전, 국가 주도 농업 산업화로 이어지는 변화 때문이었다.³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근대사가 철원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산미 증산 계획에 따라 쌀 농업 지대로 개발되었고,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한국 전쟁 최고 격전지였으며, 지금은 군사분계선이 철원군을 가로지른다. 철원군 면적의 절반씩 북한과 남한에 각각 남았다. 비무장지대와 남측 민통선 일대가 예전의 철원읍 자리다.

시가지는 폭격과 전투로 폐허가 되었고, 건물의 잔해만 드문드문 남아 있다. 그 잔해 중 하나가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모여들었던 노동당사다. 노동당사에서 민통선 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철원역으로 이어진다. 도로 옆으로 병원, 학교, 은행, 공장 같은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다. 1930년대 만들어진 철원읍 시가지의 유산이다.

1953년 휴전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no-man's land)’이 되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 각각 2km씩이다. 남측 비무장지대는 한국



그림1 --- 두루미(위)와 재두루미(아래) (사진: 유승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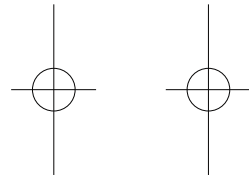
정부가 아니라 유엔사가 관찰한다. 수색과 정찰 활동을 위해 군인만 출입할 뿐,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이 전면 중단된 지 수십 년. 비무장지대에 남겨진 철원의 마을과 논은 수풀과 습지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비무장지대 남측 경계부터 민통선까지의 수 km 구간은 논으로 만들어졌다. 북한과 접경 지역이라 허락된 것은 농업뿐이었다.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원에서 강도 높은 쌀 농업 드라이브를 펼쳤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대쌀을 생산하는 민통선 이북의 철원평야는 이제 남한의 대표적인 미곡 생산 지역이다. 비무장지대의 습지와 민통선 이북의 논은 두루미에게 안전한 잠자리와 먹이터가 됐다. 두루미들은 비무장지대의 습지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철원평야로 나와 먹이를 찾고, 밤이면 다시 비무장지대로 돌아간다. 냉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뜻밖의(accidental)’ 자연이 두루미를 부른 것이다.⁴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뿐 아니라 두루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 붕괴는 북한 원조 중단으로 이어졌고, 특히 화학 비료 원조가 끊기면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추락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1994~2000)이 시작되었다. 풀뿌리와 나무껍질까지 벗겨 먹었지만, 그러고도 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

황에서 두루미에게 돌아올 알곡 같은 것은 남아 있지 않았다. 국제두루미재단을 통해 황해남도과 북한 강원도 안변에서 1970년대부터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두루미는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 중 일부는 휴전선 너머 남한 철원에서 먹이터를 발견했다. 조류학자 이기섭은 “동구권 붕괴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두루미”라며 철원에 온 두루미 상당수가 “탈북 두루미”라고 말했다.⁵

철원의 두루미 개체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월동 두루미 센서스를 시작한 1999년 철원평야의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각각 372마리와 474마리였다.⁶ 지난 2022년 겨울 철원을 찾은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각각 1,230마리와 5,461마리였다. 20여 년 만에 각각 3배, 11배 늘어난 것이다. 전 세계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절반 이상이 철원에서 월동한다.⁷ 두 종 모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 ‘취약종(VU)’으로 등재된 멸종위기종이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각 1급과 2급, 천연기념물(202호, 203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박해

민통선 이북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두루미를 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철원군 북부의 중심지인 동송읍과 인근 주민들이 두루미 탐조와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몇 년 뒤부터 두루미가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두루미가 논에 뿌려진 농약을 먹고 거품을 문 채 논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죽어 있더라는 것이다. 주민이 몰고 가던 트랙터에 두루미가 부딪쳐 죽기도 했다. 두루미 보호 활동을 펼치던 주민들도 위협을 받았다. 식당에서 뺨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가 가게 창문에 총을 쏘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두루미 ‘박해’가 정점에 치달으면서 2000년엔 트랙터로 두루미 먹이터를 갈아엎는 사건까지 생겼다(그림 2).

두루미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새다. 철원에는 최근에야 찾아왔지만, 전국 곳곳에 두루미 월동지가 있었다. 전통 문화에서도 두루미는 십장생의 하나로 길하게 여겨져 왔다. 천년을 사는 새,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새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두루미를 자신들과 동일시했다. 몸이 희고 날개 끝이

2000. 11. 7 (30) 309면

“철새보호지 지정 반대” 논 갈아엎어 철원평야 철새보호 비상

재산권 침해에 반발
주민들 “먹이 없앤다”



강원 철원군 농민들이 6일 트랙터를 동원, 철원평야에서 두루미 등 희귀철새 도래지 일대의 농경지를 갈아엎고 있다. /철원=연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 등 매년 수십만 마리의 세계적인 희귀철새들이 도래하는 강원 철원군 철원평야를 농민들이 갈아엎어 철새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철원지역 농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생태철새도래지 지정반대추진위원회' 회원 200여명은 6일 철원을 관전리 노동당사 앞에서 문화제창이 추진하고 있는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장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대형 트랙터 100여대로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된 생태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 수만평을 모두 갈아엎었다.

이에 따라 월동을 위해 철원평야를 찾은 각종 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눈이 내릴 경우 먹이 부족으로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트랙터를 동

원, 정부가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대안을 취소할 때까지 매일 수만 평의 논을 모두 갈아엎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원 생태지역이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불가능해져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하

고 있는 철새보호지역 변경 및 확장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3년 철원읍 천동리 생태일대 철새도래지 12만평을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지역 지정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인근 농경지 12만499평으로 보호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곽영승기자 yskwak@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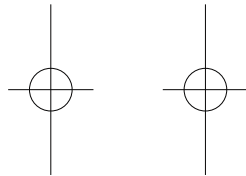


그림2 - - - 한국일보 2020년 11월 7일 자 30면, “철원평야 철새보호 비상”

검은 것이 흰 한복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과 닮았고, 외롭지만 고고한 생활 습성이 자신들의 기질과 닮았다고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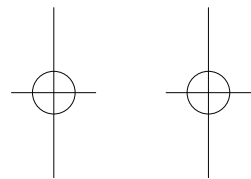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실수로라도 두루미 고기를 접대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외교적 결례였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도 두루미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두루미는 벼 수확이 끝난 10월에 찾아와 이듬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3월에 떠난다. 논바닥에 남아 있는 이삭을 주워 먹을 뿐, 농작물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철원 농민들은 왜 그렇게 두루미를 싫어했을까.

두루미로 인한 규제 때문이었다. 멸종위기종의 존재는 철원평야가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의미했다. 실제로 정부는 1994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1995년), 유네스코 철새 공원(1997년), 람사르 습지 (2010년) 등 수차례에 걸쳐 철원평야 일대를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남북 간의 긴장이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1992년 리우 회담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철원평야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생태계의 보전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전지역 지정 시도는 번번이 철원 농

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살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군사 규제 속에서 살아온 철원 농민들은 자연 보전 지역 지정이 가져올 새로운 규제에 몸서리를 쳤다. 민통선 이북의 '민북마을' 주민들은 매일 저녁 군인처럼 점호를 받았다. 북한의 습격에 대비해 군사 훈련을 받고, 마을에 무기고도 만들어 관리해야 했다. 내 집과 농토가 거기 있어도, 민통선 이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번 초소에서 출입증을 내밀고 검문을 받아야 했다. 지금도 초소에는 일출과 일몰 시각이 적혀 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통선 밖에 살면서 민통선 이북에서 농사를 짓는 '출입 영농민'들은 거름을 주다가도 해가 지면 나와야 한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며칠이고 출입이 중단돼 밭을 동동 구르기도 일쑤다. 과거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정해진 색깔의 옷을 입고, 군부대에서 정한 숫자 만큼 인원이 모여야 비로소 출입할 수 있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있다.

이들 출입 영농민과 민북마을 주민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철원의 땅을 일궈 비옥한 벼농사 지대로 바뀌었다. 개간하다 지뢰가 터져 목숨을 잃거나, 팔과 다리를 잃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불안정한 남북 관계 속에서 언제 출입이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언제나 서둘러야 했다. 그



래서 철원에는 일찌감치 농기계가 도입됐다. 1968년 대마리 민북마을 입주 사진에는 트랙터가 함께 찍혀 있다. 마을 공용으로 트랙터 열 대가 지원됐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콤바인을 이용해 수확하면서 철원은 알곡이 논바닥에 남아 있는 낙곡낙실율이 높았다. 지금도 낙곡낙실율이 3%대로, 철원평야 전체로 치면 2,400톤에 이른다. 기계 농업의 부산물이 두루미의 주된 먹이원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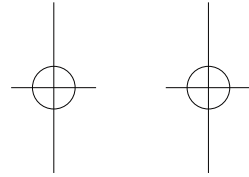
철원 농민이자 두루미 보호 운동가인 송수권(가명)은 말했다. “철원 농민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개패를 달고 군인이 주도하는 세상을 살아왔고, 과거에는 군인에게 끌려가서 ‘뺨따’도 맞았습니다. 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우리 군민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논두렁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없고, 풀 한 포기 못 건드린다고 소문이 났다. 이미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농민들은 두루미를 죽이고, 서식지를 훼손하고, 먹이터를 갈아엎었다. 두루미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전방의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질정[진력]이 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논을 통제한다고 나온 것”⁹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은 2000년엔 새로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철원평야 일부가 이미 1973년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로 지정

돼 있었는데, 실제 두루미가 많이 오는 곳을 반영해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막아냈다’. 지금도 철원평야는 기존의 천연기념물 지역을 제외하면 어떤 자연 보전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한대

2021년 2월의 쌀쌀한 아침. 철원 농민 김영태(가명)는 트랙터에 알곡 포대를 매달았다.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라고.” 그는 트랙터를 몰고 천천히 논으로 들어갔다. 겨우내 얼었던 논바닥이 녹기 시작했는지, 그의 트랙터가 잠깐 넘어질 듯 기우뚱거렸다. 트랙터가 논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오규원(가명)이 포대 자루의 끈을 풀어 느슨하게 했다. 먼지가 연기처럼 날리면서 알곡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김영태는 포대 자루를 매단 채로 트랙터를 논 구석구석으로 몰았다. 올해 세 번째 두루미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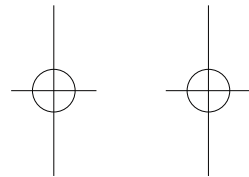
이 주기다(그림 3). 오늘 뿌려주는 것은 2톤. 벼 이삭의 일종인 청치를 뿌려준다. 가공해 시장에 내기엔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쌀알이 들어 있어 동물 먹이로 줄 수 있다. 두루미는 잡식성이다. 논외 수로에서는 왕구슬우렁이와 물고기를 잡아 먹고, 논바닥에서는 알곡을 주워 먹는다. 옥수수, 율무, 새싹매자기 뿌리를 먹는 두루미들도 있지만, 철원의 두루미는 쌀이 주식이다. 농부도 쌀을 먹고, 두루미도 쌀을 먹는다.

민통선 이북에서 농사를 짓는 김영태는 몇 년 전부터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늘 주는 것은 아니고, 겨울이 깊어져 논바닥의 알곡이 바닥날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알곡을 찾기가 힘들 때, 또 지금처럼 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떠나기 직전에 준다. 그는 어느 겨울 두루미가 얼어붙은 논바닥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는 것을 우연히 보고, “발톱이 빠지도록 먹이를 찾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¹⁰ 4년 전부터는 수확을 끝낸 논에 물을 채워 두루미 쉼터도 만들어주고 있다. 두루미는 수심 20~30cm의 얇은 물에서 잠을 잔다. 물을 채운 ‘무논’은 두루미들이 선호하는 잠자리다. 철원을 찾는 두루미들은 철원평야의 무논에서 잠을 자다, 비무장지대의 습지가 적당히 얼어붙는 12월 중순이 되면 보다 안전한 비무장지대로 잠자리를 옮긴다.

두루미를 돌보는 농부는 김영태만이 아니다. 두루미



그림3 - - - 두루미 먹이주기 (사진: 저자)



먹이 주기는 겨울 동안 십 수차례 이뤄진다. 지난겨울(2020-2021) 철원평야에는 모두 30ha의 무논이 만들어졌다. 수확이 끝난 뒤 벼짚을 논에 남겨두는 ‘벼짚 존치’도 800ha에서 이뤄졌다. 농부들은 수확 후 벼짚을 거둬 축산 농가에 동물 먹이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벼짚을 논에 남겨두면 논바다에 떨어진 알곡을 보호하고, 벼단에 남아 있던 알곡이 떨어져 두루미의 먹이가 된다. 실제로 두루미들은 벼짚을 존치한 논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벼짚 존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벼짚 존치의 두루미 보전 효과가 알려지면서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22년 겨울부터는 4400ha에서 벼짚 존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철원 평야(7700ha) 전체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20년 전만 해도 한 줌에 불과했는데, 두루미를 돕는 농부와 주민들은 크게 늘어났다. 철원에는 두루미를 전면으로 내건 지역 기반 보호 단체가 3곳에 이른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두루미 학교’와 두루미 먹이를 주는 ‘두루미 공간’도 있다. 두루미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역 주민 기반 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지역 두루미 보호 단체들, 두루미 관련 시설, 두루미가 찾아오는 마을과 농민회까지 함께 하는 큰 기구다. 철원군도 적극적이다. 두루미 전시관과 탐조 시

설을 2016년 개관했고, 지난해에는 ‘국제 두루미 센터’도 지었다. 2022년에는 군청 조직에 두루미를 전담하는 ‘DMZ 두루미관광’계를 아예 만들었다. 겨울에는 철원군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매달 두루미 개체 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의 철새 센서스와 별도로 주민들이 직접 두루미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군의 경계를 넘어 철원으로 진입하면 도처에 두루미 조형물과 이미지가 보인다. 관광 명소에도, 관공서 건물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철원 오대쌀 포대와 군부대의 민통선 출입증에도 두루미가 그려져 있다. 심지어 가축전염병 방역 체크 포인트에서 차량을 멈추는 것도 거수경례를 하는 두루미 조형물이다(그림 4).

모두가 두루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한 마리의 두루미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논의부터 두루미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두루미 논의의 스펙트럼은 넓다. 상이한 꿈들은 경합하고 때로 충돌한다. 지역 두루미 보호 단체들은 2012년 철새가 찾아오는 토교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 축제를 여는 문제로 반목했고, 몇 해 뒤엔 한탄강 두루미 잠자리에 두루미 탐조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로 부딪혔다. 최근엔 두루미 ‘텃새화’ 이야기가 나온다. 두루미가 겨울철에만 찾아와 관광 산업에 제약이 있으니, 두루미를 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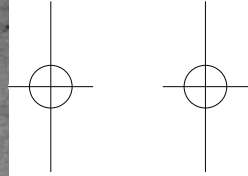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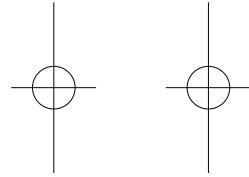


그림4 --- 가축전염병 방역 체크포인트의 두루미 조형물 (사진: 저자)

에서 인공 번식해서 길러 4계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 두루미 보호 단체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이 제안에, 다른 단체들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적 쫓는다. 야생동물을 붙잡아 기를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서식지를 잘 관리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성의 공유

지난 20여 년 동안 철원 농민과 두루미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무엇이였을까, 농민들을 두루미에 접속시킨 것은. 우선, 피해는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도움도 되지 않던 두루미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 있다. 생태관광이 활발해지면서 두루미는 관광 자원이 됐고, 지역과 특산품 마스코트로 활용되면서 농산물 가치를 높여왔다. 철원 농특산물 브랜드 ‘두루웰’은 ‘두루미’와 ‘웰빙’에서 따 온 이름이다. 나아가, 농부의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었다. 두루미 개체수가 늘어나고 두루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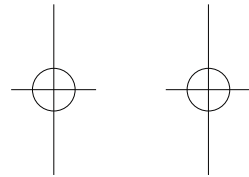
하면서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두루미와 직접 대면(encounter)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들은 두루미가 사람만큼이나 크고, 우아하게 몸짓하고, 가족을 이뤄 생활하고, 매년 시베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놀라운 새임을 알게 됐다. 오랜 시간에 걸쳐 두루미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대면하며 이들은 매년 자신의 눈을 찾아오는 새에 대해 ‘애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다. 두루미를 돕는 농부들은 두루미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루미가 아름답고, 안쓰럽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쌀에 의탁해 살아온 두루미와 농부의 삶이 함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 국가가 국민과 자연을 통제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던 시절은 끝났다. 국가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철책을 세웠고, 전국에서 사람을 불러 지뢰밭을 개간했고, 이들의 일상을 통제해 벼농사를 짓게 했다. 국가의 냉전적 통제가 의도치 않게 두루미를 불러들였고, 새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철통같던 국가의 통치는 끝났다. 우리는 인류세의 생태사회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조건 속에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불안정하며, 미래는 불확실하다.¹¹ 강고하던 민통선은 남북 관계 개선과 개발

압력 속에서 잇달아 해제되고 있다.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한 때 100여 개에 이르던 민북마을은 6개로 줄었다. 오랫동안 국민을 먹여 살리던 쌀 농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몰락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극단적 기상은 농업과 일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쌀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 식생활의 변화, 농업의 세계화, 인구 감소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은 추락한 지 오래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좋은 값을 받는 철원 오대쌀도 피해갈 수 없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쌀 대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설 농업이나 스마트 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철원에도 비닐하우스가 늘었다. 파프리카나 고추냉이를 재배한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농업이나 스마트 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많은 농민들은 농지가 민통선에서 해제되면 쌀 보다 더 이익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2년 민통선에서 해제된 철원 양지리에는 가축 축사만 들어섰다. 양계장이 늘어나면서 매년 겨울 조류독감이 돌 때마다 철원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양계장의 조류독감이 두루미를 포함한 야생 조류로 확산될까 두려워서다. 쌀 농업의 암울한 미래는 두루미의 목도 죄어오고 있다. 눈이 없으면 두루미는 먹이터를 잃게 된다. 거기다 사람의 출입



이 제한돼 안전한 먹이터였던 철원평야는 민통선이 북상하며 줄어들고 있다. 양지리는 오랫동안 ‘철새 마을’로 불릴 만큼 두루미가 많았다. 그러나 민통선에서 해제된 뒤 두루미는 좀처럼 양지리를 찾지 않는다. 두루미가 먹이를 찾던 논에는 이제 양계장과 돼지 축사만 보인다.

철원 농민회의 김광규(가명)는 “농민과 두루미가 똑 같아졌다”고 말한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두루미가 서식지를 잃게 되고, 농민도 농토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쌀에 의탁한 농민과 두루미의 삶은 서로 얽혀 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생태사회적 위기 앞에서 두루미의 삶만큼이나 농민의 삶도 취약하다. 그렇다면, 두루미가 살면, 농민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김광규는 2000년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농민 중 한 명이었다. 이제 그는 수확이 끝나면 논에 물을 대 두루미 습터를 만들어준다. 두루미 먹이도 주고, 보호 활동에도 참여한다. 철원 농민회는 2016년부터 두루미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다. 두루미를 지키는 것이 농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루미가 살아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두루미도 산다. 이들은 두루미가 쌀 농업을 지켜야 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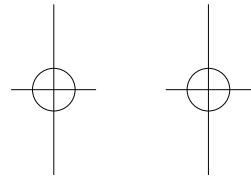
논은 사람뿐 아니라 두루미도 먹여 살린다. 두루미가 오는 논에는 우렁이, 달팽이, 미꾸라지, 물방개도 산다. 벗짚

을 남겨두고, 눈에 물을 대면 두루미뿐 아니라 눈에 서식하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을 얻는다.¹² 오랫동안 철원의 눈은 기계와 비료를 동원해 쌀을 생산하는 ‘쌀 공장’이었다. 두루미의 도래와 농민의 ‘환대’는 눈이 쌀 공장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삶을 부양하는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만든 습지인 눈이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것이다. 눈의 보전적 가치는 쌀 농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된다. 눈을 찾는 두루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함으로써 농민과 두루미, 눈의 수서 생물에게 비로소 미래가 생긴다.¹³ 인류세의 생태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 같은 다종적 감수성과 응답을 통해 이들은 “협력적 생존(collaborative survival)”¹⁴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글을 철원 농민들이 철새 때문에 모내기 시기를 늦춘 이야기로 끝내고자 한다. 두루미는 3월이면 떠나지만, 기러기는 4월 초까지도 남아있다. 2000년대 중반, 기러기의 북상 시기와 농민의 모내기 시기가 겹치면서 기러기가 갯 내놓은 눈의 모를 쭉쭉 뽑아 먹어 골칫거리가 되곤 했다.

김광규

뛰나면, 못자리할 때 바쁘니까 철원 농협이 민통선



안에서 공동 식당을 운영해요. 거기 하루 오시는 분이 600명, 800명 돼요. 공동 식당 할 때 다 못자리를 하는 거야. 조합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 밥하는 시기를 열흘만 늦춥시다. 조합장 말이, ‘농민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아니, 밥을 해 주니까 오는 게 아니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했어.

나

원래 식당 여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김광규

지금 보면 4월 초에 시작하는데, 본연에 했던 것보다 열흘 늦춘 거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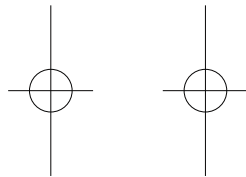
열흘 늦어져도 농사에 큰 지장은 없어요?

김광규

지장은 없죠. 그러니까, 기러기가 만 마리가 가야 되는데 천 마리가 남았단 말이야. 열흘을 주니까 900마리가 간단 말이야. 나머지 100마리라고. 애들이 주는 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거지. [중략] 그 당시 뭐였냐면, 철원이
벼를 일찍 생산하면 값을 잘 받는 게 있어요. 서울 시장에
쌀이 먼저[추석 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루, 이틀, 이렇게 앞당겨지기 시작했던 거야. 예전엔
기러기가 간 다음에 모내기를 했는데, 우리가 쫓아
올라갔던 거지. 개네는 자기 갈 시간에 갔던 거예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애들을 들볶았던 거지.¹⁵

이렇게 인간이 교란시켜 놓았던 농부와 새의 리듬은 회복되
었다. 철원 농협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은 2022년에도 4월
2일에 문을 열었다.



1

이 글은 한국-네덜란드 큐레이토리얼 온라인
리서치 플랫폼 '드리프팅 커리큘럼(Drifting
Curriculum)'에 기고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한국일보, "철원평야 철새 보호 비상",
2000년 11월 7일 자, 30면.

3

인류세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인류세의 형성과 전개는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생태적 맥락 속에서 이뤄진다.
철원 사례는 일제 식민지 경험, 한국 전쟁, 국가
주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한국 인류세'의
형성을 보여준다.

4

체르노빌과 함께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재난
등으로 인간의 간섭이 일정 기간 중지돼 자연의
생태적 과정이 회복된 '수동적 재야생화'의
대표적 사례다.

5

인터뷰, 2021년 2월 19일.

6

국립생물자원관, 『2020-2021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국립생물자원관: 인천.

7

IUCN은 전세계 두루미와 재두루미 개체수를
각각 2,000-2,650마리, 3,700-4,500
마리로 추정한다. Bird Life International.
2021. "Grus japonensis" (errata version
published in 2022) & "Antigone vipio"
(errata version published in 2018)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21:
e.T22692167A213488064. [Accessed on 01
November 2022].

8

인터뷰, 2022년 1월 25일. 모든 인터뷰
참여자는 가명으로 처리됐다.

9

인터뷰, 김광규, 2021년 1월 15일.

10

인터뷰, 2020년 7월 7일.

11

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두루미의 먹이 찾기, 분변, 걸기 등의 활동은
토양 내 탄소와 질소 함량을 높이고, 토양
미생물의 양과 호흡을 증가시킴으로써 논
토양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 Min, K. and
Choi, M (2002) "Resource landscape,
microbial activity, and community
composition under wintering crane
activities in the Demilitarized Zone, South
Korea." *PLoS ONE* 17(5): e0268461.

13

Van Dooren, T., Kirksey, E., and Munster,
U. 2016. "Multispecies studies: Cultivating
arts of attentiveness." *Environmental
Humanities*, 8, 1-23.

14

Tsing, A., Bubandt, N., Gan, E. and
Swanson, H. 2017. *Arts of Living on a
Damaged Planet: Ghosts and Monsters of
the Anthropocene*, U of Minnesota Press.

15

인터뷰, 2022년 3월 18일.